

똑! 똑!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 상정중학교. BTL 민자사업으로 최첨단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건립된 학교로서 2008년 3월 개교와 함께 전병철(60) 초대 교장이 취임했다. 이어 3월 4일 새내기들 입학식과 더불어 첫 수업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1학년 7학급, 2학년 8학급으로 전교생 602명과 함께 교직원 32명이 학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2009년 6월 8일(월) 11

‘배워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 “Happy SangJeong”

인천 상정중학교(www.isangjeong.ms.kr) 학교탐방



◆ 토론학습으로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영어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상정중학교(교장 전병철)는 개교와 동시에 변화 속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특별지원을 받아 도서관 ‘샘소스터’ 1관, 과학실 ‘상정 사이언스존’ 2관, 영어 전용학습실 3관을 최신시설로 구축해 학생들의 편의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경 쓰는 한편, 아늑한 상담실을 조성해 내력 있는 교육활동을 펼치고자 힘쓰고 있다.

도서관 ‘샘소스터’는 전교생에게 점심시간, 방과후, 휴업일에 도서관을 개방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과과별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독서능력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하여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별관 2층에 마련된 ‘SANGJEONG SCIENCE ZONE’은 제1과학실(물리·지구과학실)과 제2과학실(화학·생물실)에 첨단 멀티기자재와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16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자연관찰대회, 제10회 가족공동발명놀이대항(에어코트 제작 및 발사부문, 발명 캐릭터 그리기 부문, 기하학구조물제작부문), 청소년과학탐구대회(기체과학 부문)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그 결과 조정은 과학교사는 과학문화재단 주최 ‘제6회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고, 상금 500만원으로 과학실을 확충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본관 3층 3개의 교실을 꾸며 만든 ‘SANGJEONG ENGLISH CLUB’ 운영 및 영어연극소극장 공연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기르고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Fun and Practical English Club’ 운영 및 영어연극소극장 공연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기르고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그 결과, 경인일보 주최 인천 사랑 영어날 대회에 2명이 수상하였으며, 1년 내내 영어 동아리 활동을 한 영어 연극반은 북부교육청 제1회 북부중학

생 영어동아리 활동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열의, 성의, 창의력이 있는 학생을 기르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꾸준히 연구하는 교사. 학교를 신뢰하고 학부모가 참여해 힘을 모아 배움, 즐거움, 행복이 있는 학교.”

전병철 교장은 지난해 9월 개교식을 통해 자신을 선장에 비유하며 학교의 나갈 바를 강하게 설명했다.

그 같은 목표 아래 학생과 선

육 활동인 ‘실버한글교실’ 수강생들과 학생들 40여명이 자매결연을 맺어 ‘사랑의 편지쓰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의 좋은 결실을 맺었다.

전병철 교장은 “상정중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학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현재 ‘실버한글교실’, ‘학부모, 소방대원 영어교실’ 등 사회 공헌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평생학습실에서 진행

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 노인 공경 풍토와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 자원봉사와 불우학생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 선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친구를 사귀고 각종 정보를 얻는 기회와 함께 사회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어 삶을 더욱 값지게 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조정은 연구부장은 “정년 퇴임한 정진영(75) 지도 강사의 무료 자원 봉사임에도 열의와 열정이 대단하다.”며 “더욱이 수강생들의 출석률도 매우 높아서 탈락이 거의 없을뿐더러 입소문을 타고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강보다는 중임식이 더욱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하고 점검고시까지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 그 분들을 계기로 점검고시반을 추가 운영하는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버한글교실’은 학교, 학생, 지역 주민 모두가 win-win 하는 좋은 사례로 타 학교와 차별화된 성과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발간한 수강생들의 문집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가슴 깊은 감동과 익살, 삶의 지혜와 경험 등을 두루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으며 ‘그린마일리지’라 불리는 상벌점제를 통해 이 탈 학생에게 봉사활동으로 순화 지도를 하는 한편, 월요일 수업 시작 전 10분씩 ‘TV동화 행복한 세상’ 시청을 통해 바르고 따뜻한 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포괄적인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

학생지도와 관련한 문자메세지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학생지도에 대해 학교-가정연계도 긴밀히 했다.

학교 전체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독서시간’을 운영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English Cafe’ 방송 청취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3주 토요일에는 ‘한자야, 놀

고 있는 ‘실버한글교실’은 월,수,금 주 6시간을 한글 해독과 기초 수학, 건강 및 노래 강좌, 컴퓨터 강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작년 5월에 실시한 교내 체육대회에서는 학생들이 노인들과의 친선경기를 벌였다. 11월의 학교축제는 할머니 합창단이 찬조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

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 노인 공경 풍토와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 자원봉사와 불우학생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 선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친구를 사귀고 각종 정보를 얻는 기회와 함께 사회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어 삶을 더욱 값지게 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조정은 연구부장은 “정년 퇴임한 정진영(75) 지도 강사의 무료 자원 봉사임에도 열의와 열정이 대단하다.”며 “더욱이 수강생들의 출석률도 매우 높아서 탈락이 거의 없을뿐더러 입소문을 타고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강보다는 중임식이 더욱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하고 점검고시까지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 그 분들을 계기로 점검고시반을 추가 운영하는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버한글교실’은 학교, 학생, 지역 주민 모두가 win-win 하는 좋은 사례로 타 학교와 차별화된 성과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발간한 수강생들의 문집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가슴 깊은 감동과 익살, 삶의 지혜와 경험 등을 두루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으며 ‘그린마일리지’라 불리는 상벌점제를 통해 이 탈 학생에게 봉사활동으로 순화 지도를 하는 한편, 월요일 수업 시작 전 10분씩 ‘TV동화 행복한 세상’ 시청을 통해 바르고 따뜻한 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포괄적인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

학생지도와 관련한 문자메세지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학생지도에 대해 학교-가정연계도 긴밀히 했다.

학교 전체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독서시간’을 운영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English Cafe’ 방송 청취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3주 토요일에는 ‘한자야, 놀

고 있는 ‘실버한글교실’은 월,수,금 주 6시간을 한글 해독과 기초 수학, 건강 및 노래 강좌, 컴퓨터 강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작년 5월에 실시한 교내 체육대회에서는 학생들이 노인들과의 친선경기를 벌였다. 11월의 학교축제는 할머니 합창단이 찬조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

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 노인 공경 풍토와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 자원봉사와 불우학생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 선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친구를 사귀고 각종 정보를 얻는 기회와 함께 사회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어 삶을 더욱 값지게 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조정은 연구부장은 “정년 퇴임한 정진영(75) 지도 강사의 무료 자원 봉사임에도 열의와 열정이 대단하다.”며 “더욱이 수강생들의 출석률도 매우 높아서 탈락이 거의 없을뿐더러 입소문을 타고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강보다는 중임식이 더욱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하고 점검고시까지 합격하는 분들이 있어 그 분들을 계기로 점검고시반을 추가 운영하는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버한글교실’은 학교, 학생, 지역 주민 모두가 win-win 하는 좋은 사례로 타 학교와 차별화된 성과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발간한 수강생들의 문집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가슴 깊은 감동과 익살, 삶의 지혜와 경험 등을 두루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으며 ‘그린마일리지’라 불리는 상벌점제를 통해 이 탈 학생에게 봉사활동으로 순화 지도를 하는 한편, 월요일 수업 시작 전 10분씩 ‘TV동화 행복한 세상’ 시청을 통해 바르고 따뜻한 풍성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포괄적인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

학생지도와 관련한 문자메세지도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학생지도에 대해 학교-가정연계도 긴밀히 했다.

학교 전체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독서시간’을 운영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English Cafe’ 방송 청취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3주 토요일에는 ‘한자야, 놀



◆ 발빠른 대응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정중학교 전경

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자 학습을 생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루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초학습·교과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63명의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대학생 멘토와 학습부진 재학생 멘터를 결연하여 방학동안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집중 수업을 실시(2명 4명씩 구성 운영)했다.

또한, 전교생이 사이버가정학습 ‘인턴e스쿨’에 가입하여, 가정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전개하도록 도왔다.

또, 사이버교사들과 상담 활동을 하는 한편, 방과후학교에서는 교과 학습은 물론, 특기적성과 취미, 자격증 취득까지 목표로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해금반, 축구반 등을 개설해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교사의 수업동영상을 촬영하고, 자기장학과 동료장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수업연구대회에서 수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각종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평가 방법의 다양화와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 교원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신설학교 첫 교장을 역임하는 만큼 신입생의 기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어떤 시간보다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밝히는 전병철 교장. 각 교실과 복도를 지날 때 마다 학교를 위해 정성을 쏟은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고마워했다.

조정은 연구부장은 “활발한 교육활동과 함께 학교의 기쁨진 밀거름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방학이 나 휴일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며 “공무원이 주 5일 근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라며 부드럽고 여유있는 미소를 보였다.

계절마다 폭우로 천둥과 함께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한 여름 오후. 상정중 교내의 훈훈한 공기가 그대로 전해질 수 있었음을 일 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교직원들의 한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을 잘해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도태되고 고립되기 일쑤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공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상정중 교직원들의 겸손함이야말로 학교와 학생들의 현재요, 더욱 빛나는 미래가 아닐까 생각한다.

강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신설학교 “보람이 더 크다”

전병철 상정중학교 교장 인터뷰



지난해 상정중학교 개교와 함께 교장으로의 첫발을 디딘 전병철 교장.

그의 학교 운영철학은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조성한다’로 늘 교사들과 연구하는 자세로 학교의 갈 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교장실 의벽에 단채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9월 교육기관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교기념식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었다.

그는 연신 “개국공신”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신설학교의 교장이려면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운영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신설학교에 있어 부담이 있었다기 보다는 보람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마치 학교의 신입생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여러 선생들과 늘 같이 상의하면서 학교의 발전방향을 설계한다는 것도 즐거운 부분이었죠. 물론 선생들이 미래저래 신경쓸 일이 많아 고생스러웠겠지만 나중에는 상정중학교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정중학교가 가진 독창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아마 영어전용교실이 3개실이 있는 학교는 드물 것 같습니다. 그 만큼 같은 과목의 교육이라도 다양성을 추구해 학생들의 다양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요. 일률적인 공부 방식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여러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학생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교육이탈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학부모와 연계해 학생들을 다시 정상적인 사이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상담시간도 최대한 할애해 그들이 가진 고민을 눈높이에서 대화합니다. (상담실을 보여주며) 이런 아늑한 분위기의 상담실을 다른 학교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이것저것 만들기도 해보고 대화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요?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열의’ ‘성의’ ‘창의’를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모든 상황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상정중학교’의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전병철 교장(약력)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동인천고등학교 등 교사
- 만수여자중학교 교감
- (현)인천상정중학교 교장